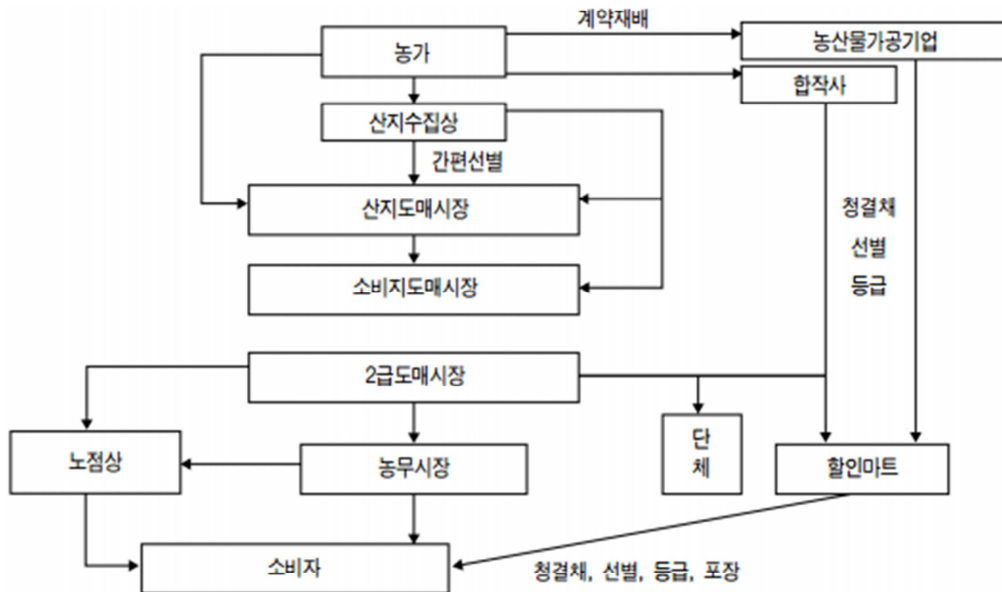


■ 중국 유통동향

○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

- 중국의 농산물 공급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대폭 증가함. 정부는 농촌 개혁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도급 책임제를 생산과 연계시킴과 동시에 유통체제 개혁을 단행함
- 전국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장거리 운송판매와 지역간의 교역을 허용하였으며, 농산물 통일구매, 통일판매제를 계약주문제로 전환함
- 개혁개방을 통해 농산물 도매시장은 국가, 집단, 개인 등 소유체계가 다양화되었으며,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함.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은 국가, 집단 또는 개인 소유로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 농산물 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에서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 도매시장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거래량은 전체 농산물 소비의 70%를 차지. 일부 대도시는 80%를 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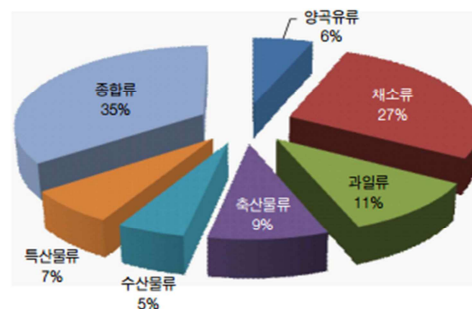
그림 1. 농산물 유통구조



자료: 張利祥, 2009. 참조 및 재정리

- 정부가 1995년 외국기업의 중국 내 유통업 취급을 허가한 이후 다국적 유통업체의 등장과 함께, 슈퍼마켓, 편의점, 할인점, 창고형 상점, 쇼핑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소매유통업체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중국 농산물유통체계의 변화를 주도함.

그림 5. 전국 농산물도매시장 경영품종별 비중 (2009년)



자료: 農業部, 2010.

- 농업부가 2010년에 발표한 농산물 도매시장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영종류별 비중은 종합류 35%, 채소류 27%, 과일류 11%, 축산물류 9% 특산물류 7% 수산물류 5%임.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 중 70%가 동부지역에 분포하고, 중부와 서부지역에 각각 20%와 10% 정도 분포함

- 동부지역 농산물도매시장의 발전수준이 중서부에 비해 높고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높음, 산지 농산물 도매시장은 2,632개로 농산물도매시장 총수의 72.9%를, 소비지농산물도매시장은 975개로 27.1%를 차지함

- 거래액 규모로 보면 연간 거래규모가 1억 위안 이상인 시장이 1,709개로 농산물 도매시장 총수의 46.9%를 차지하며, 이 중 산지농산물도매시장은 1,151개이고 소비지도매시장은 558개임

- 농산물 소비지역인 대·중도시의 소비지도매시장은 규모가 크고 시설 조건이 좋은 반면 농촌지역 특히 중부의 식량면화 주산지와 과채주산지 및 서부의 특색 농업지역 산지도매시장은 조건이 열악하고 발전 속도가 느림

○ 소매 유통

- 중국의 농산물 소매 유통체계는 여전히 집무시장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슈퍼마켓, 할인점과 같은 현대적인 유통기구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집무시장은 한국의 재래시장과 유사한 도시의 상설 재래시장으로 계획경제하의 채소 시장으로부터 기능이 이전되어 현재 중요한 소매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최근 대형 슈퍼마켓인 월마트, 까르푸 등 외국계 유통기업의 대형할인점들이 상해 등 대도시에서 점포를 확장하면서 이들이 산지에서 직접 농장을 경영하거나 또는 산지유통인이나 생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우수품질 농산물을 구매하는 형태가 빠르게 발전함.

- 1995년 중국정부가 외국계 기업의 농산물유통업 진출을 허용하면서 월마트, 까르푸 등

외국 유통기업의 중국 농산물유통시장 진출이 본격화됨. 상해, 북경, 광주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통업체의 체인화가 이루어지며 농산물 소매유통에서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함

-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수는 매년 30%의 증가속도로 급증함

- 주요 외국계 유통기업의 진출 내용을 보면 일본 야오한이, 상해의 쟁리 백화점과 합작으로 1995년 상해 푸둥 지역에 상해신세기상사를 개점하여 상해, 남경 등에 슈퍼마켓, 체인점을 설립함

- 홍콩이나 대만의 화교계는 광둥, 복건을 거점으로 점차 상해, 무한, 낙양, 북경, 천진으로 백화점과 체인점 진출 영역을 확대함. 미국의 월마트는 심천에 진출하였고 프랑스 까르푸는 상해화련그룹과 합작으로 상해내외화련종합상사 슈퍼마켓을 설립하였으며, 네덜란드 마크로는 광주에 첫 진출함

- 한국 유통업체로는 신세계 이마트가 1997년 상해에 할인점으로 첫 진출하여 현재 북경, 심천 등으로 지점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농심 메가마켓은 2001년 상해에 할인점을 설립했으며, 롯데마트는 2007년 12월 중국에 진출한 네덜란드 마크로 8개 점포를 인수하면서 중국 진출을 시작함